



세리와 바리사이
6세기, 모자이크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대성당, 이탈리아 라벤나

입당 송 |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
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 집회 35,15L-17.20-22L

화답 송 | 시편 34(33),2-3.17-18.19와 23(◎ 7ㄱ)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찢값을 벗으리라. ◎

제2독서 | 2티모 4,6-8.16-18

복음환호송 | 2코린 5,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
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 음 | 루카 18,9-14

영성체송 |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
이다.

넌 나만 바라봐



김형균 스테파노 신부 |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위원장

오늘 복음은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입니다. 루카 복음서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18,9)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차이를 비교해 봅시다.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18,11) 기도하며, 마치 자신이 하느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18,13) 자신이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이러한 태도만 보더라도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바리사이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기도의 형식으로 포장해서 자랑하듯 하느님께 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8,13)라고 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하느님 앞에서의 자신'만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바리사이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에 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자기 말만 하는가 하면, 하느님보다 다른 사람

을 의식해서 비교하는 기도를 하고, 단식과 십일조를 지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에 성전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의 태도와 기도 내용을 보면,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 했음이 보입니다. 이렇게 바리사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더 나은을 자랑하며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인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었기에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말씀을 들은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주님께서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제1독서 35,15)라고 언급했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고 차별하기보다,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제들은 "나는 옳아! 내가 더 잘 알아!"라는 우월감에 빠져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혹은 맡겨진 직책이 높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만 열심히 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남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기보다는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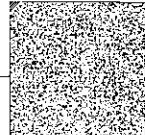


세리의 기도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대성당의 원편 상부 모자이크에는 예수님의 비유 13가지가 담여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오른쪽의 바리사이는 손을 벌려 곳곳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의 몸과 시선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반면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성소를 향합니다. 성전의 휘장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묶여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음은 계시를, 매듭은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낮춘 세리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 그를 의롭게 합니다.

성화 해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10월 말씀의 이삭은

여러 다양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ME 주말 체험자 부부, 군인, 첫 영성체 어린이의 학부모, 조부모학교 수료자) 우리 이웃들의 하느님 증언을 전해드립니다.

순교자를 노래하는 사람



방승호 요한보스코 | 가수(조부모학교 수료자)

2024년 5월 어느 날, 미사 후 주보에서 《서소문 성지에서 탄생한 44위 성인과 27위 하느님의 종 묵상집》을 필사하는 과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글쓰기에 관심이 있던 저는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책을 복사한 뒤, 아침마다 하루에 한 분씩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의 성인을 필사하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말로 들었을 때와는 달리, 글로 만나는 성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표현조차 어려울 만큼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스물한 살, 스물다섯의 젊은 나이에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성인의 이야기는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심문 중 “배교하면 살려주겠다.”는 포장의 회유에도 “만 번 죽을지라도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연히 대답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물음에 “시골 백성이 국왕을 보아야만 믿습니까?”라고 지혜롭게 응답하며 하늘만 바라보고 참수형을 받아들인 그 신비는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서소문 성지와 절두산 성지 현양탑을 찾아가 한참씩 머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두산 성지에서 열린 정미연 작가의 ‘무명 순교자를 위한 진혼곡’ 전시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전시회를 찾던 중, 출구 벽에 작게 쓰여 있던 ‘그림을 그리며 일상이 기도가 되었다.’는 글귀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래, 순교자의 삶을 노래로 만들어 기도하자. 특히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말씀들을 세상에 전해 드리자.’

집에 돌아오자마자 묵상집을 꺼내 다시 읽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고백하신 말씀들

을 가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20대가 좋아하는 리듬으로 곡을 만들면, 하늘에서도 함께 춤추며 기뻐해 주실 거라는 생각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성인 김누시아 루치아와 김효임 골롬바 두 분의 삶을 담은 곡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너무도 순조롭고 신비롭게 이어졌습니다. 요즘 저는 이 노래를 노인대학, 기도회, 피정 등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저는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순교자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젊은 나이에 불타는 쇠와 참혹한 고문을 견디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그 믿음을 노래로 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묵상집을 펼쳐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라 읽으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분들의 삶을 노래로 세상에 전하는 작은 종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방승호 님이 작사 작곡한

김누시아 루치아, 김효임 골롬바

두 분의 삶을 노래한 곡입니다.(QR코드 스캔)



한컷 묵상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 14,14)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



임여주 아네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안 방탈의 동화 《사랑하는 테오에게》의 주인공인 아홉 살 레아는 프랑스에 사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이입니다. 레아의 부모님은 레아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는데, 레아는 엄마랑 살면서 주말에는 아빠와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레아에게는 그리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지요.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몇 년 이나마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신기하다고 레아는 생각합니다.

엄마와 이혼 후 짧은 연애편 하던 아빠가 드디어 정착한 사람이 바로 테오였습니다. 그리스인 테오는 첫 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아빠의 예전 여자 친구들처럼 레아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고 아무 때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상한 발음으로 프랑스어를 말하고 혼자만의 독특한 춤을 추는 테오가 레아는 왠지 좋았습니다. 테오가 들려주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레아는 테오를 만나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테오는 레아를 아꼈고, 레아는 테오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아는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던 고민을 엄마에게 털어놓습니다. 혹시 테오와 잘 지내는 것 때문에 엄마가 서운해하거나 질투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고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레아야,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

운 일이야. 네가 테오를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니? 엄마는 네가 테오와 잘 지내서 참 좋단다. 네가 테오 때문에 우울해한다거나 테오가 너한테 못되게 굴면, 엄마는 참기 힘들 거야.” (42쪽) 엄마의 이 말은 레아의 죄책감을 없애주고 자유로운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한 사람을 이만큼 사랑하면 그 크기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소홀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애인이 생겼다고 친구들과 거리를 두거나, 단짝 친구가 생기자마자 이전에 어울리던 다른 친구들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갑자기 남겨진 사람이 되는 입장에서 당혹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한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랑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소를 통해 반려견을 입양하고 극진히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이 세상 모든 동물의 복지와 안녕에 힘쓰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쟁 중에 고통받는 모든 어린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반전 활동가가 되기도 하지요.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사랑의 가능성을 믿고, 한계 없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 41,10)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맹자는 ‘생어우환 사어안락’(生於憂患 死於安樂)이라 했습니다. 번역하면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어려움과 근심이 많을 때 분발하고 노력하고, 편안함과 즐거움 속에서는 오히려 나태해져 죽음에 이릅니다. 어려움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안락함은 사람을 퇴보시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늘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삶 안에서 절실함을 발견해야 하고, 그 절실함 안에서 또한 초연하고 당당하게 살길 바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고통을 느끼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른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동시에 욕망의 부재 역시 고통을 안겨줍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을 때 권태가 시작되고, 권태는 결국 존재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합니다. 권태가 일상이 되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결국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인간 존재의 목적이 그저 행복이 되면, 그때부터 더 많은 불행과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목표는 자기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은 결핍의 고통과 권태의 허무함에서 자유롭게 해 주는데, 윤리적 삶의 가장 적극적 형태가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느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 인간은 똑바로 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다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스승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입니다. 유다의 가장 큰 죄는 절망입니다. 즉 죄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했고, 본인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단죄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오직 신앙만이 인간을 절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絶望, 희망을 끊어버리다)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유다가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는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침묵은 하느님 경외의 첫 단계이자 지혜에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침묵은 듣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을 감아야 보이고, 귀를 닫아야 들립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20)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함께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보고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사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새겨두고, 그분의 몸을 우리 안에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입니다. 미사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시성 추진 특집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시성 기도문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한국 교회 첫 추기경인 김수환 스테파노를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빛의 사목자이자 모든 백성의 수호자로 보내주심에 감사하나다.

김수환 추기경은 시대의 예언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보루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서 모든 약한 사람들의 지킴이가 되었으며
사회 통합의 선구자로서 화합의 다리가 되었나이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은 믿음으로 순교자들의 신앙을 지켰고
청빈, 겸손, 자애를 실천하여 사랑을 증거했으며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실천하는 희망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였나이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이처럼 덕행의 모범을 보여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에게
시복시성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저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고 당신께는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울러 저희도 그가 남겨준 신앙의 유산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시대의 사도가 되어
이 세상을 밝히고 정화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과 복자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그림_박미정 노엘라 | 작가

! 가톨릭교회의 성인으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김수환 추기경님을 성인품에 올리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인품에 오르는 과정은 점점 좁아지는 사다리를 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인 성인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종, 가경자, 복자의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한 시복시성의 과정은 크게 ① 교구 단계 심사, ② 로마 단계 심사, ③ 시복 심사, ④ 시성 심사의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교구 단계는 자료 조사로 시작합니다. 해당 교구는 시성을 추진할 후보자의 성품과 덕행에 대한 자료를 모아, 교황청에 보내 검토받게 됩니다. 교황청에서 '장애없음' 답신을 받으면, 교구 차원의 심사부터 본격적인 시복시성 과정이 시작되고, 후보자는 이윽고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현재,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 교구 단계의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지난 9월 3일에 교구 차원의 심사를 진행할 법정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1~2년에 걸쳐 진행될 심사를 통해, 교구에서 모았던 김수환 추기경님에 관한 자료나 증인들의 증언이 확실한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교구 단계에서 입증된 자료는 모두 교황청 시성부로 전달됩니다. 로마 단계의 심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시성부에서 이 자료를 더욱 엄밀히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교황님께서도 후보자를 '가경자'로 선포하십니다. 순교자라면 직후에 곧바로 복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시복시성은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다면 김 추기경님도 기적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최양업 신부님이 이 과정 중에 계십니다. (순교 자제를 하나의 기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예외 규정에 적용

되지 않는다면) 기적 심사는 두 번 통과해야 하는데, 첫 번째 기적 심사가 동반되는 시복 심사를 통과한다면 '복자'가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기적 심사를 요구하는 시성 심사를 통과하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김수환 추기경님은 교구 단계의 심사가 시작되어 '하느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그다음 단계인 로마 단계의 심사를 끝내고 '가경자'가 되셨으며, 윤지충 바오로를 비롯한 124위는 시성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복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건 신부님이 '성인'이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결과인 것입니다.

(교구 단계의) 심사에 앞서 모든 신자의 의견을 듣는 공시 절차도 병행합니다. 교황청 시복 절차법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1조 나항에 따르면, "주교는 (시성을 청하는) 청원인의 청원을 자기 교구에서 공표하고, 모든 신자에게 그 안전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제출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를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의 모범을 보여준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 추진 여정은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영성을 심화시키는 기도와 현양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 여정에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한국교회의 103위 순교 성인 및 124위 순교 복자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전구를 청합니다. (지난 8월 21일에 발표하신 정순택 대주교님의 〈서울대교구 제11대 교구장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추진에 관한 담화〉의 일부)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 하는 달입니다.

11월 1일(토)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0월 31일 유영근 요한 신부(43세)
- 1984년 11월 1일 최창정 요아킴 신부(47세)
- 1993년 11월 1일 최석호 바오로 신부(73세)
- 2021년 10월 28일 경갑실 사도요한 신부(72세)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에서만 받습니다.

11월은 위령 성월이며, 11월 2일(주일)은 '위령의 날'로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날인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을 먼저 기념하고, 이튿날에는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용산 성직자 구역 (용산성당 내)	때: 11월 2일(주일) 오후 2시
문의(전체준비): 02)719-3301	참석 범위: 제3 평등지구 ~ 제8 성동-광진지구 신부님과 본당 신자
용산성당	미사 집전: 교구장과 사제단 공동 집전
	강론 담당: 제8 성동-광진지구
용인 성직자 구역 (용인공무원원 내)	때: 11월 2일(주일) 오후 2시
준비사항 문의: 02)323-4450	참석 범위: 제9 강동지구 ~ 제2 서대문-마포지구 신부님과 본당 신자
연희동성당	미사 집전: 총대리와 사제단 공동 집전
	전체준비 및 강론 담당: 제2 서대문-마포지구

교구청 알림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자순례

때: 2026년 1월 12일~23일(11박12일)
지도: 김성민 신부 / 주관: 성서못자리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테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지영 개인전: 1전시실
가톨릭사진가회 정기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 31일(금)~11월 9일(주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 미사

때: 11월 6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고스트홀) / 집전: 이현규 신부(파테말라 선교)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문의: 02)727-2407, 2409

2025년 가을걷이 감사 미사 및 동농한마당잔치

행사: 가을걷이 감사 미사(12시), 생명농산물 직거래 나눔장터, 전시·문화·체험·먹거리마당(9시30분~15시)
때: 10월 26일(주일) 9시30분~15시
곳: 명동대성당(앞마당, 성모동산, 가톨릭회관 앞마당)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일회용품·비닐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바구니를 지참해주세요 / 문의: 02)2068-7066(wm.or.kr)

해설이 있는 도보순례 접수안내

신청: 10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참가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일시	코스	비고
11월 1일(토)	1코스(말씀의 길) 명동대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11월 4일(화)	3-2코스(일치의 길) 노고산성지~삼성산성지	일부 구간 대중교통 이용
11월 8일(토)	3-1코스(일치의 길) 당고개성지~절두산순교성지	
11월 22일(토)	2코스(생명의 길) 가회동성당~종림동약현성당	
11월 26일(수)	저녁애 순례길(강경궁 코스) 명동대성당~창경궁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

생명위원회 생명을 위한 월례 미사 안내

때: 11월 3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 채플 / 문의: 02)727-2351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린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심리강좌(윤제연 교수), 자존감 되찾기(문종원 신부)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민족화해위원회

1) 제10회 2025 한반도평화나눔포럼
내용: 평화의 장인과 가톨릭 공동체
때: 11월 14일(금) 9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고스트홀 /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arepeace.net) 참조
2) 2025 평화의 바람 기행(47기) 참가자 모집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접경지역을 걸으며, 함께 기도해요! / 문의: 02)753-0815

대상: 도보순례 가능한 누구나 40명(신청, 입금순)
때: 11월 21일(금)~22일(토) 1박 2일 / 회비: 7만원
곳: 임진강생태길, 북한군묘지, 유엔군화장장시설, 민족화해센터 / 신청방법: 문자신청(010-4682-2412 링크발송)
3) 1486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10월 2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분당': 평양교구 마산 본당 10월 후원회 미사는 없습니다 / '후원회원과 함께 하는 가을 소풍'으로 대체합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11월 모임

접수: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강사: 이수산나 수녀
대상: 35세 이하 남녀 젊은이(회비 없음)
주제: 희망을 만난 성경 인물-베드로
때: 11월 4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문의: 02)727-2031 박스테파니아 수녀

2025 한국평단협 열린세미나 참가자 모집

주제: '평신도' 용어에 대한 인식과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
때: 11월 8일(토) 오후 2시~5시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 회비 없음
발제: 경동현 박사(우리신학연구소, 평신도사도직연구회 연구위원) / 문의(사전접수): 02)777-2013(홈페이지 www.clak.or.kr 온라인 접수)

2027 서울 WYD 행사 안내

1) 2027 서울 WYD 주제가 공모
내용: 2027 서울 WYD의 의미와 주제 "용기를 내어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를 담은 창작곡(작사·작곡) / 11월 30일(주일)까지 접수
2) 2027 서울 WYD 합주단원 모집
오케스트라: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국악기
3) WYD 수퍼클래스
주제: 고통을 넘어선 희망
때: 11월 1일(토) 16시~18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고스트홀 / 강사: 박승찬 교수
4) WYD 청년 리더십 연수
때: 11월 8일(토) 14시~19시30분
곳: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 위 행사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oul.org) 참조
문의: 02)2230-2027 / 2027 서울 WYD 조직위

2025 요한복음서 11월 피정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성경 지참)
내용: 요한복음 특강 / 강: 조창수 신부
때: 11월 7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2026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순례 피정
9월 3일~17일 / 피정 지도: 조창수 신부
매주(화) / 안국교-와룡공원-북악팔각정-창의문-경복궁역 10km
산티아고 화요순례 피정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새혼 포럼)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1월 1일~30일 / 문의: 010-8867-3217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유영희 삼성산 부회장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말씀·축복기도

11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9695-1366
때: 11월 27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ICPE 오마이갓 오마이바다 피정

대상: 가톨릭 청장년 누구나
때: 11월 14일~16일, 마리스타(합정)
문의(접수): 010-7169-9466 / 카카오톡 플친: ICPE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11월 1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205-3호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3지구 매일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내용: 상하이트스트, 찬양치유 피정, 미사/점심 무료 제공
때: 11월 19일(수), 갈현동성당(전철 3호선 연신내역 7번 출구) / 강사: 조남구 신부(공도성당 주임)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때: 11월(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0월 28일 이상기 회장 11월 4일 김현우 신부

그리스도의 레지오수도회 성지순례

순례 모집 / 문의: 010-5735-4578
레늄그리스티 사도직 담당 정시문 신부

2025년 11월	10박11일, 멕시코 과달루페·칸쿤
2026년 1월	14박15일,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2026년 7월	9박10일, 캐나다 성모성지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청년 피정

대상: 행복을 찾는 33세 미만 미혼 여성
영원을 바라보는 하루 11월 9일(주일) 10시
수도원 성탄 전례 피정 12월 24일(수) 18시~25일(목)
송년감사 행복 피정 12월 31일(수) 18시~2026년 1월 1일(목)

가정선교회 11월 피정

때: 12시30분~16시50분, 가톨릭회관 1층·3·7층
강당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11월 1일(토) / 김경지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11월 5일(수) / 한연희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1월 15일(토) / 이창진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치유·회복을 위한 특별대피정 11월 30일(주일) 9시30분
이보 빠비치 신부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

문의: 02)3276-7794
때: 12월 26일(금)~2026년 1월 4일(주일)·1월 8일(목)~17일(토)·1월 23일(금)~2월 1일(주일), 예수마음 배움터 / 주최: 예수회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피정 동반자: 이근상 신부(예수회)
때: 12월 10일(수) 17시~14일(주일) 16시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회비: 40만원
문의(접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11월 14일~17일·12월 19일~22일·2026년 1월 16일~19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11월 27일~29일·12월 5일~7일·12월 13일~15일·12월 19일~21일·2026년 1월 10일~12일·1월 16일~18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월 15일~18일·12월 1일~3일, 연말연시 12월 31일~1월 3일(한라산·해남·해돋이)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때: 위령성일 피정 11월 2일~4일, 제주순례 피정 12월 6일~8일·12월 12일~14일, 한라산 눈꽃 영실 산행 2026년 1월 9일~11일·1월 15일~18일·1월 23일~25일·1월 30일~2월 1일·2월 6일~8일·2월 22일~24일·2월 27일~3월 1일, 추자도 성지순례 3월 5일~8일·3월 12일~14일·3월 18일~21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남·해돋이) 12월 31일~1월 3일
2026년 피정 접수 중 / 문의: 064)732-4702 변형의 집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1월 7일 10시~15시30분
수험생을 위한 기도 피정	11월 13일(목)
가톨릭시간과 함께하는 대점목 피정	11월 28일(금)~30일(주일)
요한묵시록과 함께하는 대점목 피정	12월 10일(수)~13일(토)
송년 피정	12월 31일(수)~2026년 1월 1일(목) / 선착순 접수
노베나 기도 접수	11월 2일~10일 / 미사·위령기도 봉헌
단체 피정(자책·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신구약 성경 통독 피정

때: 2026년 3월~11월 매주, 서울대교구 마리스타 교육관 / 지도: 성령강림사도수녀회(주최)
인원: 화요일반·수요일반 요일별 12명
문의: 010-7165-0166 이 마리 효임골롬바 수녀

성경 치유 대피정

강사: 송봉모 신부(강의·미사), 한영임 회장
때: 11월 10일(월) 10시~17시 / 점심 무료제공
곳: 인천교구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중동역 5분 거리) /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성모술술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 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월 둘째주(금·주일) 2박3일 11월 7일~9일·12월 12일~14일·2026년 1월 9일~11일
경북 청도 기차역에서 무료 픽업 신청 가능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교육

고상·성모상·묵주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성가발성 노래교실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나 음악원(주최 / 신촌·서초)

새천년복음화학교 11월 영성교육·미사

때: 11월 2일(주일) 13시30분~16시20분 / 내용: 뜻과 희망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53-8765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교육청 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한글반, 영어기초 ABC 영어회화 / 문의: 02)727-2471

광희문성지 교회사와 성지순례 특강

회비: 1만원 / 문의: 02)2234-1456
조한건 신부 / 네이버카페 '광희문성지' 참조
때: 매월 첫째·셋째주(주일) 15시 미사 후

노들담수녀회 '성경 두레박'(성경 강의)

대상: 성경에 관심 있는 누구나(선착순) / 회비: 4만원
때: 11월 12일(수) 10시~16시30분, 노들담교육관(종로 북촌) / 문의: 02)3673-2274, 010-8033-4415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문의: 010-6655-1165
때: 11월 26일~12월 10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회비: 15만원 /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26년 전기 신입입생 모집

학과: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노인복지, 정신건강복지 / 접수: 10월 27일(월)~11월 9일(주일)
곳: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 222 / 서울성모병원 내)
문의: 02)3147-8781 / 홈페이지(gsocialwelfare.ac.kr) 참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6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2월 1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 3일(월)~14일(금)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일반인을 위한 연기 체험 워크숍

연기 체험을 통해 감춰있는 자아를 자유롭게 열기
때, 곳: 11월 10일~12월 1일 매주(월) 14시~16시, 명동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전진상 영상센터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스페인어·이탈리아어 강좌

12월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접수: 10월 27일(월)~11월 21일(금)
개강: 12월 2일(화)~6일(토) 강좌별로 상이함
회비: 32만원부터 / 12주 과정, 주1회 2시간 수업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식 교육
문의: 02)705-8718(http://scec.sogang.ac.kr)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
진학 상담,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원서접수: 10월 27일(월)~11월 9일(주일)
면접: 11월 21일(금) / 문의: 02)2164-4176, 4787, 4173
홈페이지(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참조

제27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pbccamp.com)

미국 (3주)	2026년 1월 15일~2월 4일 / UCLA·UC버클리· 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 (4주)	2026년 1월 11일~2월 4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가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2025년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때: 11월 15일 14시 / 대상: 1980년 이후 출생자
홈페이지(https://www.catholic-choir.or.kr) 참조
문의: 010-3211-5195 (문자)

예수 그리스도 고난수도회 재속3회(동반자회) 8기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남녀 신자
모집: 12월 7일까지 / 문의: 010-7553-4672 담당
자, 02)990-1004 우이동 명상의집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 받은(2026년 예정) 초2~초6 가톨릭
신자 /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오디션: 11월 23일(주일) 13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당실 / 11월 20일(목)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10-2650-8014 cpbc소년소녀합창단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곳: 10월 31일(금) 14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문의: 02)929-2977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위령의 날 미사

때: 11월 2일(주일) 15시 / 문의: 02)3147-2402
곳: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을

곤베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 미사

때: 11월 1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때, 곳: 10월 31일(금) 11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첫토요일 신심 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11월 1일(토) 9시~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웅기장학회 월례 미사

때, 곳: 10월 2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김상엽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박상수 신부 / 문의: 02)727-2525 사무국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
서 가신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안내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순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
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
해리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품매장 '살림'

이민·유품정리,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
제품을 기증 받음 / 재활용, 환경 살림, 이웃 도움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적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홈페이지(yonaresort.com) 참조
방법: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 문의: 041)934-7758

가톨릭신문 로고·제호 디자인 공모전

주제: 가톨릭신문의 소명과 새로운 100년의 비전
을 담아낼 로고와 제호 디자인 / 문의(접수): 010-
9935-7671 가톨릭신문 창간100주년 준비위원회
공모기간: 12월 19일까지 / office.catholictimes.org
대상: 관심있는 이들 누구나, 개인 및 팀별 참가 가능
시상: 대상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상금 100만원

제12회 가톨릭 영화제·10월 영화 치유 미사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제12회 가톨릭영화제
때, 곳: 10월 23일(목)~26일(주일), CGV명동역 씨네
라이브러리 / 주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
상영작: 홈페이지(caff.kr) 참조 / 무료 입장
2) 10월 영화 치유 미사
단편영화상영 프로그램, 미사/사전 접수·회비 없음
때, 곳: 10월 29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8146-7655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어르신케어 요양 보호사 모집 / 문의: 010-7171-9503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신학대학) 직원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
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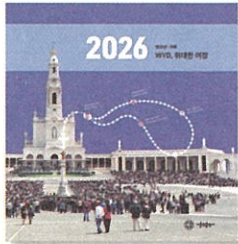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2026년 믿음으로 채우는 365일

기도와 말씀, 전례를 담은
2026년 가톨릭출판사 달력·다이어리 시리즈



A형 바티칸, 교황과 함께 걷는 길



B형 WYD, 위대한 여정



C형 거룩한 성전들



D형 십자가가 있는 풍경



E형 미사, 찬란한 순간



H형 탁상 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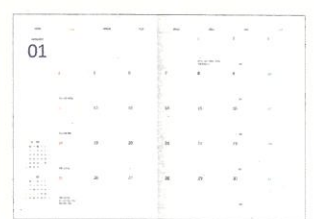


대 A4



중 B5

I형 탁상 메모 다이어리



일쁘디 다이어리

전례력에 따라 흐르는 신앙의 시간,
아름다운 그림으로 하루를 여는 2026년 성화 달력



벽걸이 캘린더
성모님과 함께하는 365일



북마크 캘린더
성모님과 함께하는 365일



탁상 캘린더
미사, 찬란한 순간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의 모든 도서와 성물, 디지털 콘텐츠를
'가톨릭북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www.CatholicBookPlus.kr

구입문의
02) 6365-1888





제2시대문 · 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김 현 (안토니오)

주임신부 : 최장민 (도미니코)

부주임신부 : 백종원 (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 (스테파노)

연례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5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오후 6시 (청년)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성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 위령의 날 미사

11월 1일(토) 오후 18시미사와 11월 2일(주일)
모든 미사는 위령의 날을 맞아 죽은 이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 미사 후에 연도가 있습니다.

● 위령의 날 성직자 묘역 미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성직자들을 기억하며,
연회동성당 주관으로 미사가 봉헌됩니다.
· 일시 : 2025년 11월 2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용인 성직자 묘역 (용인공원묘원 내)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여성구역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자를 초대합니다.

· 첫모임 : 10월 26일(주일) 오전 10시 / 304호
· 추가모집 : 11월 19일(수) 까지
· 대상 : 예비신자, 외딴교우, 첫영성체 준비자
· 교리시간 : 주일반 : 오전 9시~10시 / 304호
수요반 : 오후 7시~8시 / 304호
· 세례식 : 2026년 4월 26일(주일)
※ 예비신자 인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입 교우를 환영합니다 (9월~10월)

· 환영식 : 10월 26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허정련	실비아	2-2	김비봉	마리아비안네	2-3
이민엽	바실리오	3-3	이창은	스텔라	3-3
민성삼	베드로	4-3	김부성	마르코	5-1
여정금	엘리사벳	5-1	위재희	아네스	5-3
박성훈	마르티노	6-5	이창주	아론	8-5
신두철	토마스아퀴나스	9-1	김로사	로사	9-6
김민호	클라우디오	9-7			

● 성모신심미사

· 일시 : 11월 1일(토) 오전 10시

● 연례회 미사

· 일시 : 11월 4일(화) 오전 10시
※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례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시간

· 일시 : 11월 6일(목) 오전 10시미사 후

● 여성구반장 회합

· 일시 : 11월 9일(주일) 12시 / 소성전

● 연회동 M.E. 총회

· 일시 : 10월 26일(주일) 오후 5시 / 지하식당
· 문의 : 엄경용 미카엘 (010-8889-7861)

● 사목회 WYD 분과 신설 및 임명식

· 분과장 : 정인상 미카엘
· 부분과장 : 이현학 스테파노
· 임명식 : 10월 26일(주일) 11시미사

● 여성울뜨레야 야외행사

· 일시 : 10월 28일(화) / 7시50분 성당 출발
· 장소 : 강화도 일만위순교자현양동산

● 남성울뜨레야

· 일시 : 11월 16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성물방 봉사자 모집

· 봉사시간 :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 문화학교(주일학교) 학생 모집

·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한글캘리그래피
· 수업기간 : 12월 6일(토) ~ 2026년 2월 28일(토)
매주 토요일 수업
· 신청 : 문화학교 오픈채팅방에 신청
· 재수강 : 11월 1일 ~ 11월 9일
· 신규수강 : 11월 10일 ~ 11월 23일
· 문의 : 최윤희 아네스 (010-4538-5665)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10. 19)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3	762 (37.9%)	714 (35.5%)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감사헌금 (10월 13일 ~ 10월 19일)

김옥녀 오만원 곡선모 오천원
김희태 오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칠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9주일)

교 무 금 6,730,000원
주일헌금 5,230,500원
전교주일 2차헌금 1,737,100원

입당	18	봉헌	221,219,216	성체	167,168,169	파견	271
----	----	----	-------------	----	-------------	----	-----



가련한 이 부르짖 - 자 주님이 들어주셨네